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106-01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10계명

1.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2.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3.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교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 좋은 모델이 된다.
5.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6.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7. 실종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 한다.
8.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한다.
9.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10.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1.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주의 깊게 관찰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영유아기는 호기심이 강하고 신체조절 능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영유아들은 그들의 신체능력을 실험해보고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이러한 영유아들의 탐색시도는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윤선화 외, 2010).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측면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예민한 관찰자가 된다면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모든 감각을 열어서 민감성을 갖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2. 영유아만 두고 보육실을 비우지 말아주세요.
3. 잠시 보육실을 비워야 한다면 반드시 다른 교사에게 보육실의 안전을 부탁해주세요.
4. 이동시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해주세요.
5. 유아 혼자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교사에게 말하도록 알려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명꼴로 아이 사망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최근 5년간(2009~13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 자료 등 어린이집 실태에 관한 정부와 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자료 4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사고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4건(월 0.9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유형별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 증후군’이 3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돌연사 증후군은 수면 중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실상 진상 파악이나 책임 규명이 어렵다.

[시사저널 2015.01.30. 조해수 기자]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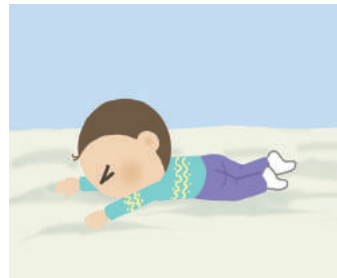
아차! 물건이 쏟아져 다칠 수 있어요!

식탁보나 천 등 영유아들이 잡아당기기 쉽게 늘어져있는 것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천 위에 위험한 물건들과 무거운 물건들이 영유아에게 쏟아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급적 책상 위에 천을 깔지 않도록 합니다.



아차! 질식사 할 수 있어요!

잠을 자기 어려워하는 영유아들 중, 옆드려 자면 잠을 깊이 자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옆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다가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인형이나 폭신한 베개 등에 코가 막히어 질식사 할 수 있어요. 영유아들이 낮잠을 잘 때,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숨이 막힐 수 있는 물건은 치워주시고 교사는 영유아들의 잠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차! 딛고 올라가 추락할 수 있어요!

의자나 책상이 창문 근처에 있으면, 영유아들은 자신의 신체능력을 실험해 보고 창문 밖이 궁금하여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자나 책상 등에 올라갈 경우, 창문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영유아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창문 근처에 놓지 마세요. 또한 낮은 책상이나 의자에 올라갈 경우, 떨어져 탈골절의 위험이 있으니 영유아들에게 올라가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아차! 영유아가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등·하원 시, 실외활동 전·후에 교사가 다른 영유아를 챙기거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열려 있는 문으로 영유아가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와 곧바로 연결되는 현관에는 안전 문을 설치하고, 하원 시 문 앞에는 여러 학부모님들과 영유아들이 복잡하게 뒤섞일 수 있으니 아이들의 안전을 꼭 확인하세요.



함께 생각해 보아요



만 1-2세 연령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안전사항은?

영아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 보호나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영아의 안전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에 달려있어요!



만 3-5세 연령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안전사항은?

유아는 운동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로, 자신의 능력을 실험해보고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위험한 상황에 도전하려는 유아들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요!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¹⁾



영아의 건강을 체크 하세요.

TIP! 저체중 영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등원 시 체온, 안색, 기분이 양호한지, 칭얼거림 정도가
평소보다 많은지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숨이 막힐 수 있는 폭신한 침구는 피해주세요.



실내 적정온도(22~25도)를 유지해주세요.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워주세요.



낮잠 시, 영유아를 남겨두고 보육실을 떠나지 마세요.

TIP! 보육실을 잠시 비워야 할 경우, 다른 교사에게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보세요!

1. 영유아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우지 마세요.

- 집 앞 가게를 가거나 외출을 하는 등 잠깐이라도 영유아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은 위험해요.
- 영유아가 깊이 잠이 든 밤이어도 영유아들이 깰 수 있습니다.

2. 집안일을 하면서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살펴볼 수 있는 곳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릴때의 기계소리, 손빨래나 설거지의 물소리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로 소리가 날 때 특히 유의해주세요.

3. 외출 시에는 영유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 자녀와 외출할 때에는 항상 영유아의 손을 잡고 다녀주세요. 또한 영유아를 차도에서 떨어진 곳으로 걷게 합니다.

4. 자동차 안에 영유아를 혼자 두지 마세요.

- 차 안 영유아의 울음소리가 밖에서는 들리지 않고, 영유아가 혼자 자동차에서 나오려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의 밀폐된 차량 내에서는 아이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2007).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똑바로 눕혀 재우기. 질병관리본부. 재구성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 잠자는 영유아를 혼자둔다면?

나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무서워서 울지도 몰라요.

잠을 자다가 내가 아프면
누가 알 수 있나요?



⚠ 집안일을 한다고 영유아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엄마가 안보고 있으니
하지 마라고 했던 것들을
몰래 한 번 해봐야겠어!



⚠ 자동차에 영유아를 혼자둔다면?

더운 자동차 안은 답답해
숨이 쉬어지지 않아.

차 안에는 신기한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만져도 위험하지 않겠지?

차 안이 심심해지면 혼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1.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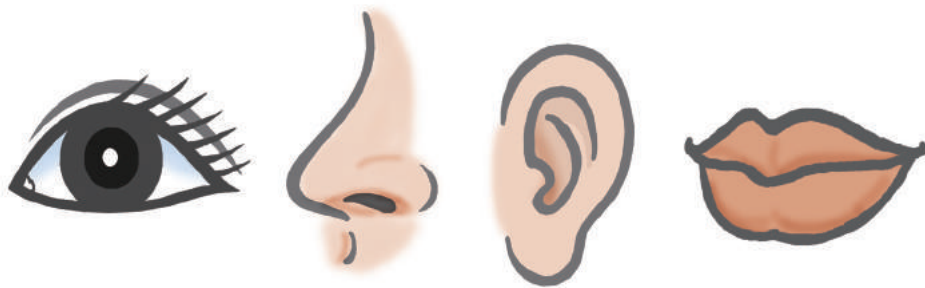
안전한 낮잠 재우기

- ☐ 영아 건강체크
- ☐ 폭신한 침구 NO
- ☐ 등을 바닥에 붙이고 똑바로 눕혀 재우기



교사부착용자료 ✂

1.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모든 감각을 열어
민감하게 안전을 살피주세요!

2.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안전한 환경이란?

어린이집 시설과 설비뿐 아니라 놀잇감에도 위험요소가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접수된 공제급여 청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17.4%는 교재교구나 놀잇감 및 실내 놀이기구에 의해, 실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24.2%가 실외 놀이기구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위험요소가 없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환경이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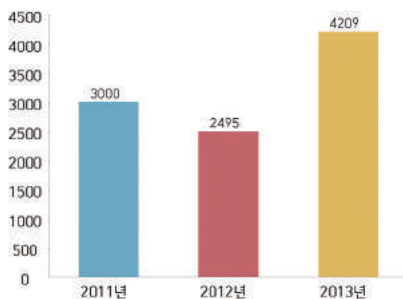
보육교사 Action Plan!

1.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봐주세요.
2. 위험요소가 보이면 **즉시 제거**하고 고쳐주세요.
3.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꼼꼼히 실시해주세요.
4. 실외놀이터 바닥 및 모래영역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5. 실외놀이 기구의 상태를 **매일**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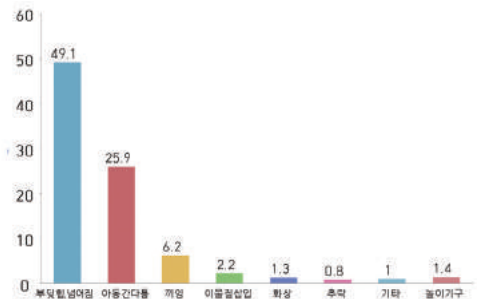


다빈도 사례 ²⁾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사고유형별 발생비율]



2) 보건복지부(2012), 제31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공간별 안전한 환경구성을 위한 TIP!

Tip! 보육실

1. 안전장치를 설치해주세요.

-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 책상, 교구장 등의 뾰족한 부분에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합니다.

2. 미끄럼방지 처리를 해주세요.

- 보육실 바닥은 안전매트를 깔아 미끄럽지 않게 합니다.
- 문턱이 있을 경우,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합니다.

3. 콘센트와 전기줄을 안전하게 처리해주세요.

- 콘센트는 안전 덮개로 덮어두고, 콘센트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물기가 없는 붓으로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화재위험)
- 전기줄은 영유아 발에 걸리지 않도록 전선물드로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4.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 비상약품이나 각종 세제, 칼, 성인용 가위 등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합니다.
- 히터 또는 선풍기는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합니다.

Tip! 화장실

1. 화장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 온수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 (예:온수의 양 또는 온도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조절합니다.

2.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주세요.

- 미끄럼 방지용 슬리퍼를 사용합니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합니다.

3. 영유아에게 위험한 요소를 차단해주세요.

- 세면기, 욕조 등 모서리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 세제나 청소도구는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는 안전 덮개를 씌우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워기 줄을 짧게 정리하여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휴지걸이, 수건걸이, 거울 등은 영유아의 눈높이 맞춰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5. 세면기나 거울이 높을 경우에는 안전 보조발판을 고정하여 설치해주세요.

Tip! 복도와 계단

1. 계단에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고 왁스 등의 광택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2. 계단이 꺾어진 공간에는 장식장 또는 위험한 물건을 놓지 마세요.
3. 복도 벽에 부착한 유리 액자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4. 복도에 있는 라디에이터에 잠금장치를 해주세요.

Tip! 식당 및 조리실

1. 식수대의 정수기는 섭씨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주세요.
2. 가전제품의 전기 줄은 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해주세요.
3. 안전문을 설치하여 영유아가 조리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4. 조리도구(칼, 가위 등)나 주방세제는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Tip! 유희실

1. 유희실 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주세요.
2.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카펫 또는 안전매트를 깔아주세요.
3. 유희실에 있는 기둥이나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설치해주세요.
4. 대근육 활동기구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해주세요.
5. 사용하지 않는 놀잇감은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Tip! 실외놀이터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을 월1회 점검하고 기록해주세요.
2. 유리파편, 날카로운 돌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3. 실외놀이 기구의 볼트, 너트 상태와 갈라진 틈 등이 있는지 매일 점검해주세요.
4. 모래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배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해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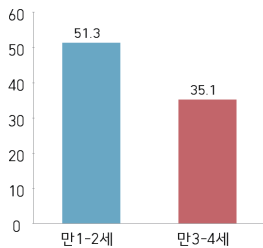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제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http://www.cpf.go.kr/front/index.do>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위한 연령별 유의점³⁾

만 1-2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꼬집음(할퀴기)**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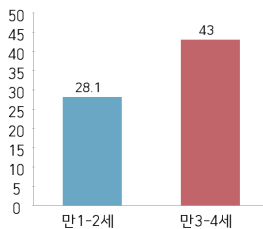


[연령별 '꼬집음' 사고비율]

어릴수록 언어적인 소통 및 표현능력이 부족하고 협상기술이 미숙하므로 장난감 분쟁이나 의견 대립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 영아들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장난감 분쟁이 적도록 **장난감의 종류와 수를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만 3-4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부딪침** 이예요!



[연령별 '부딪침' 사고비율]

유아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량이 많아 시설이나 물체를 탐색하다가 안전에 위협받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지도해주세요.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⁴⁾

- 추락사고** : 가구 위나 창문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방충망은 영유아들이 기댈 경우 추락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 중독 및 삼킴 사고** : 물건을 삼키지 않도록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 화상사고** : 주방기구나 열기구 등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주세요.
- 익사사고** : 대야나 욕조에는 물을 받아 놓지 말고, 화장실 변기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놓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해주세요.
- 기타사고** : 물건에 베이고, 긁히는 등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가위, 칼 면도기 등)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2004), 안전사고 사례집, 서울특별시

4) 소방방재청(2009),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어린이 가정 안전사고 예방수칙, 소방방재청, 재구성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우리아이 안전을 위하여
매일 매일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거실

- ☐ 창문앞이나 베란다에
아이가 밟고 올라갈만한
가구나 물건은 없나요?
- ☐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없나요?
- ☐ 아이의 손이 끼일 수 있는
문이나 가구는 없나요?



주방

- ☐ 가스레인지 위의 프라이팬이나
냄비 손잡이가 밖으로
향해있지는 않나요?
- ☐ 주방바닥이나 아이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나요?
- ☐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나요?



욕실

- ☐ 물이나 비누 등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나요?
- ☐ 수도꼭지가 온수방향으로
놓여있지 않나요?
- ☐ 욕조나 대야에 물이
채워져있지 않나요?
- ☐ 욕실안에 세제나 약품이
놓여있지 않나요?



방

- ☐ 창문앞이나 베란다에
아이가 밟고 올라갈만한
가구나 물건은 없나요?
- ☐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없나요?
- ☐ 아이의 손이 끼일 수 있는
방문이나 가구는 없나요?

2.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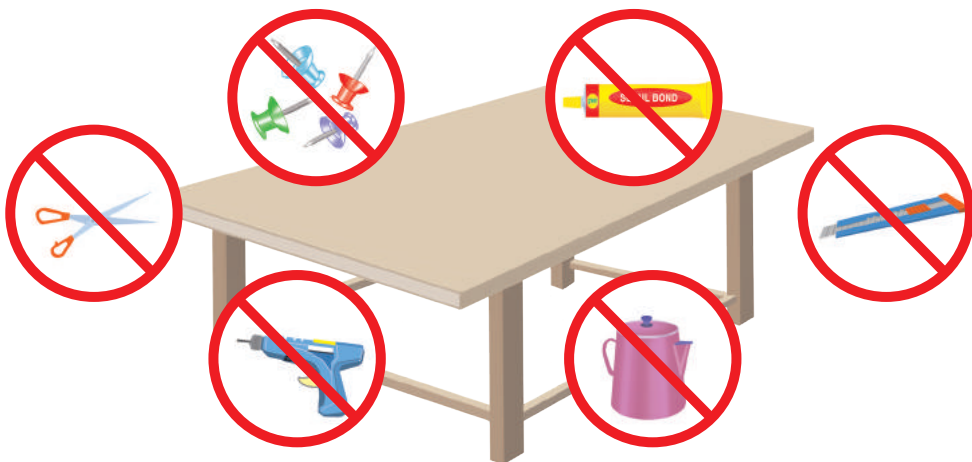
화장실 안전 주의하세요!



교사부착용자료 ✂

2.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잠깐! 살펴보세요!



3.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은?⁵⁾

유해물질이란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유해물질에는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성분들이 있으며 진드기와 같은 해충류나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아토피, 천식,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신체기관이나 장기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가 아니고 성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같은 화학물질에 접촉하더라도 독성의 영향이 성인에게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 영유아는 활동량이 많아서 더 많은 화학물질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 엄마의 모유나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도 화학물질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어 다니거나 손을 입에 넣는 행동으로 더 쉽게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알아두세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중금속류, 부유세균,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류)
2. 주기적인 청소와 세탁,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3. 새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환경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세척 후** 사용하세요.
4. 영유아에게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어린이집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세균 등등’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 보다 19.2% 초과 검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등의 유해물질도 최대 30.8% 초과.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들은 영·유아 가운데 화학물질에 민감한 아이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에너지경제 2015.01.21 한상희기자]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학용품 무더기 ‘리콜’

완구, 자동차와 로봇 축구, 물총, 소꿉놀이, 조립식 블록 등 11개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00배까지 나오거나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카드뮴이 대 120배까지 검출됐다. 유·아동복도 5개 제품에서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넘게 나오거나 납이 50배 이상 검출됐다.
[한국일보 2015.01.05 임소형기자]

‘실내 환기 안하면 아토피·천식·비염 유발’

문체에 있는 다양한 유해물질과 나쁜공기가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편리한 생활용품, 건축재에 첨가된 유해물질이 빠져나와 실내공기나 집안 먼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아두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에는 실내공기질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민일보 2015.01.20 장윤형기자]

5) 환경부(2010).어린이와 환경물질이야기. 환경부



생활 속 유해물질 TIP!

유해물질의 종류 ⁶⁾

● 아토피와 천식, 학습장애 등 영유아에게 위험한 **프탈레이트**

- 함유제품: 주로 영유아용 장난감, 방과 거실의 바닥재, 빨대, 지우개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프탈레이트는 영유아들의 주의력결핍 증상악화 및 두뇌발달 저해 영향 등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성분이 인체 내에 높은 아동일수록 공격성, 과잉행동, 짜증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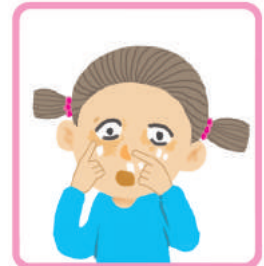
● 피부에 자극을 주고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스페놀A**

- 함유제품: 식품 용기나 물병, 젖병, 플라스틱 그릇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비스페놀A는 급성으로 노출되었을 때, 영유아들의 피부나 눈 등에 자극을 줍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아토피나 천식, 발달장애 등의 원인이 되며 체내 농도가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불안이나 우울지수가 상승되어 학습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눈과 코를 자극하는 **포름알데히드**

- 함유제품: 가구, 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⁷⁾: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시 폐와 점막(눈, 코, 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유아의 흡입 노출은 호흡기관, 천식, 안구 자극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 영유아보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영유아가 아토피에 대해 더 취약하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 어지러움과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납**

- 함유제품: 고무매트, 크레파스, 물감, 지우개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납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입니다. 폐 속에 들어온 납이 복부 불편감, 통증, 변기,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경련 등 급성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농도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지능, 기억력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서울특별시(2015).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 속 환경호르몬 예방 관리.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7)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www.chemistory.go.kr

어린이집 공간 속 유해물질

페인트칠, 벽, 바닥재

- 페인트가 칠해진 벽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개선 공사 후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시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세요.

영유아 장난감

- 영유아 장난감(고무공, 플라스틱 장난감 등)이나 놀이매트 등에는 물체를 말랑말랑하게하는 프탈레이트 또는 표면을 매끄럽게하는 비스페놀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들이 입에 넣지 않게하고 사용 후 손을 씻게 해주세요.



미술용품

- 일반적인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의 경우, 색깔을 내기 위해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들이 입으로 빨거나 물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손을 꼭 씻게 해주세요.

영유아용 가구

- 가구접착을 위해 사용된 폼알데하이드나 표면처리를 위해 니스를 사용한 경우 휘발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 자재 및 도료로 제작된 가구를 사용하세요.

유해물질 예방법

1. 친환경 장난감을 사용해주세요.
 - 환경마크 인증 제품인지 확인합니다(환경마크, KC마크, GR마크).
2. 크레파스나 물감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사용 후 손을 씻도록 해주세요.
3. 전자제품은 영유아들의 접근이 차단되는 곳에 놓아주세요.
 -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둡니다.
 - 영유아가 복사기나 프린터와 같은 전자기기가 많은 곳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4. 실외놀이, 외출 시 묻은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먼지를 털어주세요.
5. 새로 구입한 책은 일주일 동안 바람이 잘 드는 곳에 펼쳐두세요. 표백제, 접착제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피부나 호흡기 자극이 줄어들 수 있어요.
6. 바닥재, 페인트가 사용되는 환경개선 공사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 후 영유아가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me
환경부

환경부(<http://www.me.go.kr>)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

환경교육포털(<http://www.keep.go.kr>)
어린이 환경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케미스토리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어린이 주변 환경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
(<http://www.eco-playground.k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정보 제공



알아두면 좋은 TIP!

환경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KC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함을 의미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함



GR마크

우수재활용제품마크. 기존기술의 개량이나 개선, 신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품



환경마크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등 국가가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품질

자연정화 식물, 알아두세요



아레카야자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



행운목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



스킨답서스
주방에 두면 일산화탄소를 제거



관음죽
화장실에 두면 암모니아를 제거



고무나무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적 독소 제거



안시리움
새집증후군에 효과적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1. 하루 3번, 30분씩 실내 환기시킵니다.
2.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여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 습기로 인한 세균번식을 방지합니다.
4. 살충제와 의약품, 화학제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5. 친환경 장난감을 구매하고, 환경을 생각하여 장난감을 물려주고 물려받습니다.
6. 아레카야자, 행운목 등 자연정화 식물 길러봅니다.
7. 새집으로 이사할 땐 FLUSH-OUT을 실시해봅니다.
 -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시키는 방법. 섭씨 온도 16도 이상으로 유지, 상대습도 60%내외로 유지
 - 신축건물의 시공 완료 후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불박이 가구류 설치이후 거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시행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는 10가지 방법⁸⁾

- 하나. 합성섬유보다는 순면직물로 된 옷과 침구를 사용하세요.
폴리에스테르는 가열되면 유독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가 닿는 의류나 침구에는 가능한 천연제품을 사용합니다.
- 둘. 새 옷은 한 번 세탁한 후 넣어두세요.
새 옷에는 화학약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유해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정전기 발생도 막아줍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도 바로 옷장에 넣지 말고 냄새와 유해물질이 날아가도록 2~3일 정도 밖에 걸어둡니다.
- 셋. 살충제 대신 모기장과 은행잎을 사용하세요.
여름에는 모기향보다 모기장을 활용하고 바퀴벌레와 개미를 퇴치할 때는 은행잎을 두면 효과가 있습니다.
- 넷. 취침 시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전자기장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잠잘 때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합니다.
잠자리는 가능한 한 전기회로에서 멀고 곰팡이가 덜 생기는 곳이 좋습니다.
- 다섯. TV는 2m 이상 떨어져서 시청하도록 도와주세요.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TV를 시청할 때는 2m 이상,
컴퓨터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합니다. 숲이나 선인장은 음이온을 발산하여 전자파로 양이온이 많은 공기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 여섯. 자연적인 소재로 냄새를 제거하세요.
방향제보다는 숲으로 대신합니다. 모과 · 솔가지 · 허브 등 은은한 자연의 향기를 풍기는 것도 좋습니다.
- 일곱. 세제의 사용을 줄이세요.
싱크대와 욕실을 청소할 때는 세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세제나 베이킹소다로 자주 닦아냅니다.
- 여덟. 가스레인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팬을 작동시키세요.
가스레인을 사용하는 동안 나오는 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은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 아홉. 도자기, 유리 등의 천연소재 식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것을 담으면 다량의 화학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에도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일회용 비닐백보다는 뚜껑이 있는 유리 그릇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 열. 배수관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자주 닦아주세요.
시원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곰팡이도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곰팡이가 잘 생기는 주방과 욕실의 배수관 둘레를 신경 써서 자주 닦아 줍니다.

8)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www.chemistory.go.kr

3.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잊지 않았죠? 체크해 보세요!

환기 했나요?	걸레질 했나요?	손을 씻었나요?
☐ 하루 3번 ☐ 30 분씩 ☐ 3시간 간격	☐ 매일 ☐ 물걸레 ☐ 마른걸레	☐ 출근 후 ☐ 식사준비 전 ☐ 투약 전 ☐ 외출 후

사용 후 손을 씻도록 안내해주세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놀이용품	고무공, 플라스틱 장난감 등, 어린이용 식기세트, 놀이매트, 젖병, 치아발육기, 고무젖꼭지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미술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중금속
유아용 가구	화장대, 식탁, 의자 등 유아용 가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교사부착용자료 ✂

3.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알아두세요! 환기 333법칙⁹⁾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3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9) 정식(2014) 새집증후군 완전정복. 라온북.

4. 교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 좋은 모델이 된다.

영유아의 안전교육이란?

영유아가 자신의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조절능력과 운동기능이 숙달되지 않은 시기이며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때보다도 상해를 당하기 쉬운 시기입니다(이기숙 외, 2011).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즉 나이, 인지적 발달, 운동기술,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영유아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해주세요.
(교통안전, 놀이터 안전, 물놀이 안전, 실종예방 안전 등)
2. 안전교육은 실제 상황 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시해주세요.
(산책 시 교통안전교육, 놀이 시 놀이 안전교육, 차량 탑승 시 차량 안전교육 등)
3. 영유아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세요.
4. 영유아가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5. 안전교육의 내용이 습관화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체험시켜주세요.
6. 교사가 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7. 안전교육 내용을 가정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화재대피 보육교사 “아기와 교사, 한몸처럼 대피”

지난 20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화재 상황을 살핀 후 창문으로 원생 27명 모두 재빨리 대피시킨 사건이 화재이다. 보육교사들은 원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남은 교사는 소화기로 진화하는데

불과 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사상자는 0명이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인터뷰에서 화재를 대비한 매뉴얼이나 예방 연습을 많이 하였고, 항상 안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노컷뉴스 2015.03.26, 이기범 기자]



어린이집 안전교육을 위한 TIP!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 오용·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법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내몸의 소중한 명칭 2. 내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교육 4. 사례분석

Tip! 안전교육은 이렇게!

1. 아동복지법령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세요.
2.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하세요.
3. 안전교육은 보육일지 등에 실시한 시기와 내용 그리고 평가를 간략하게 작성하세요.
4. 영유아의 **발달 정도나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해주세요.



혹시 안전교육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교사 스스로 나의 안전교육 모습을 체크해보세요.

- ☐ 영아부터 유아까지 전 연령의 안전교육의 **계획과 실행**이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되어 있나요?
- ☐ 영아부터 유아까지 한 공간에 모여 대집단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 ☐ 정해진 안전교육의 횟수나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표로 영유아들에게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 ☐ 실제 안전교육 실행 시 영아는 제외시키고 있나요?
- ☐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놀잇감이나 놀이에 대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놀잇감을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놀이를 못하도록 하나요?

*위의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현재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보고 하단의 안전교육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어린이집 연령별 안전교육



영아 안전교육 방법

1. 만0~1세까지는 전적으로 **성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 만2세까지는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직접적인 행동이나 체험**을 통하여 가르치는 동시에 **적절히 보호**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 영아의 경우 먼저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며, 미끄럼틀을 타면서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같이 **놀이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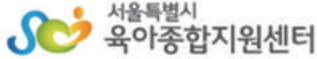


유아 안전교육 방법

1. 신체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위험한 상황이나 도구에 대한 판단력도 형성되므로 질식과 같은 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교통사고나 추락, 충돌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2. 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 유아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내면화 하도록 지도합니다.
3. 유아기는 언어나 그림을 이용하거나 영상매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위험요인과 대처방법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상황중심적으로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있는 일상생활 중 직접 실험해보고 연습해보도록 합니다.
 - 종이를 사용할 때, 종이가 날카로워 베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 바깥놀이를 나갈 때,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보세요.
 - 보육실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과 미끄러지거나 부딪힐 수 있음을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함께 정해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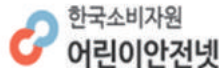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eoul.childcare.go.kr>
안전교육자료,
안전교육 관련 동영상(정보마당 자료실)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www.childsafedu.go.kr
안전교육 자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 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국가재난정보센터
www.safekorea.go.kr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자료



어린이 안전넷
www.jsafe.go.kr
안전교육 자료
(교통, 놀이, 식품, 화재 등).
응급처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www.csia.or.kr
안전교육, 안전관련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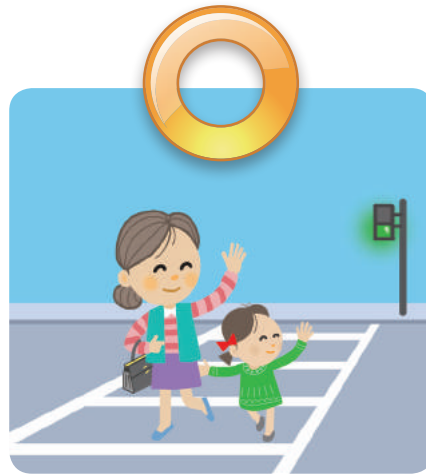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1. 생활하면서 구체적 상황에서 교육을 해주세요.
 - 길을 건널 때 함께 신호등을 보고 건너보세요.
 - 약을 먹을 때, 보호자가 주는 약만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세요.
 - 바깥놀이를 나갔을 때, 실종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이동하세요.
2. 놀이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3. 영유아들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 실제로 구체적 상황을 경험해보며 영유아가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4. 가정에서 어른이 안전한 생활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엄마 제는 아기 제가 걷는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아가야, 너는 왜 옆으로 걸니? 똑바로 걸어야지.'



4. 교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 좋은 모델이 된다

생활 속 안전교육!



5.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서 ¹⁰⁾

현장학습은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나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추상적 사고와 활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장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유아에게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와 대상을 경험하는 체험 중심적, 아동중심적인 현장학습은 영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과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이동 시 보행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사전답사**를 통해 현장학습 장소와 주변환경의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세요.
2. 수시로 **인원점검**을 해주세요.
3. 놀이 시 **모든 영유아**를 살필 수 있는 장소에 교사가 위치해주세요.
4. 현장학습 시 **영유아를 인솔하는 성인(자원봉사 도우미 인력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5. 현장학습 장소에 따른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영유아들에게 알려주세요.
6. 이동 시 영유아가 이용할 **안전한 보행로**를 확인해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소풍 간 어린이 연못에 빠져 숨진 채 발견

3살 김모 군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있는 연못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 군은 어제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 인솔교사 4명과 함께 임진각 소풍을 왔습니다. 김군이 사라진 것을 인솔교사가 알게된 건 오후 2시 반쯤, 교사들은 한 시간동안 김군을 찾아다니다 행방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중략....

김 군이 발견된 곳은 처음 교사와 함께 있던 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발견된 지점의 물 깊이는 어른의 무릎 아래 정도까지 차는 깊이였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익사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 군이 일행으로부터 떨어진 경위와 어린이집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KBS뉴스 2013.5.22. 송형국 기자]

10) 김다희(2006). 어린이집 현장학습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현장학습 안전하게 다녀오기 ¹¹⁾

현장학습 준비하기

1.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 현장학습 장소가 영유아들이 놀이하기에 안전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 교사 확인 및 교사 간 역할을 분담합니다.
 - 놀이장소와 놀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2. 사전 답사를 다녀오세요.
 - 현장학습 장소의 동선 및 놀이 장소,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 비상대피로와 비상대피장소를 알아둡니다.
 - 현장학습 장소 주변의 사고발생 시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둡니다.
3. 가정과의 연계 사항을 챙겨보세요.
 - 현장학습 장소와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현장학습 참가 영유아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합니다.

현장학습 출발 전

1. 등원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세요.
2. 교사 간 역할과 진행 및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하세요.
 - 지원 가능한 교사를 확인합니다.
 - 교사의 위치를 선두, 중간, 후미로 나눕니다.
 - 위치별, 시간별 역할에 대해 교사 간 공유를 합니다.
 - 장소나 활동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3. 영유아의 복장을 확인하고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4. 현장학습 준비물 및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세요.
 - 비상연락망 : 기관연락처, 교사 연락처, 부모 연락처, 응급 전화번호
 - 차량 전화번호, 현장학습 관련 번호 등을 적어줍니다.
5. 현장학습 장소 및 안전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세요.
 - 현장학습 일정에 대해 영유아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안전사항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줍니다.
6. 영아반의 경우 유모차 준비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장학습 시

1. 미리 짝을 정해 또래 인솔 및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 개별성향을 고려하여 서로 도움 줄 수 있도록 짝을 정합니다.
2.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세요.
3.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뒤처지는 영유아를 확인하세요.
4. 놀이 시 모든 영유아를 살필 수 있는 장소에 교사가 위치해주세요.

현장학습 후

1. 다친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치료하세요.
2. 다음 현장학습 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을 평가하고 기록해보세요.
 - 다음 현장학습을 위하여 장소의 적합성, 안전성, 이동의 용이성, 교사간의 역할분담, 영유아의 반응 등을 자세하게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11)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구성



이동 시 안전 (보행 안전)¹²⁾

도보를 이용할 때

1. 안전한 보행로를 선택하고, 보행 시에는 인도 안쪽으로 걷도록 해주세요.
- 교사는 사전 점검을 통해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 보다 안전한 보행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도를 가장 적게 건너는 길,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
2.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길의 노란선 안쪽, 혹은 가장자리 가까이 보행하도록 해주세요.
3. 좁은 길이나 골목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 멈추어 좌우를 확인해주세요.
4. 날씨의 특성을 고려해주세요.

비오는 날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 밝은 우산(혹은 투명 우산) 또는 우비 입기 우산을 똑바로 세워서 쓰기
바람 부는 날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가방에 넣기
눈 오는 날	흰색 옷 입지 않기,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밖으로 빼고 걷기, 빙판 길에서 뛰지 않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음을 지켜주세요.

선다	2. 본다	3. 손을 든다	4. 확인한다.	5. 건넌다
횡단보도 안전선에서 세 발자국 물러난다.	좌, 우를 살피면서 신호등이 녹색인지 확인한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든다.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다.	손을 들고 운전자를 보며 건넌다.

TIP! 유아들은 손만 들면 자동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손을 들고 건너는 것만으로는 자동차가 멈추지 않으며 세심히 주의를 살펴야 함을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건너기

- 화살표시가 있는 횡단보도 오른쪽의 보도경계석 앞에 선다.
- 좌우를 살피며 오는 차가 없는지,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한다.

12)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



어린이집 현장학습을 위한 장소별 유의점¹³⁾

숲과 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갔어요!

공원, 숲, 잔디밭 등의 장소는 영유아가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고 넘어지거나 부딪힘, 찢리고 긁히는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 너무 짧은 복장은 피해요!
- 벌집이나 곤충 집 위치를 파악해요!
- 해충기피제(모기, 살인진드기)를 사용해요!
- 야생 식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않아요!
- 앞이나 주변을 살피며 놀이해요!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수영장, 워터파크와 같이 물놀이 장소에서는 익사나 체온저하, 심장마비와 같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 물 높이를 확인해요(영유아 배꼽정도 유지)!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해요!
-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져요!
- 휴식 시 가운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요!
- (30분 물놀이, 10분 휴식 권장)



동물원에서는 조심해야해요!

영유아 시기에는 동물에 대한 안전 지식이 없어서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만지다가 물리거나 긁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 관람 울타리 철책 안전여부를 확인해요!
- 조련사의 감독 하에 만져보도록 해요!
- 먹이는 함부로 주지 않도록 해요!
- 동물 우리 안에 손을 넣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해요!



TIP!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 : 바로 깨끗이 흐르는 물 또는 소독약으로 씻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1.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나요?
2. 영유아의 개인 물품에 이름을 적었나요?
3. 현장학습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했나요?
4. 활동하기 편안한 복장을 준비했나요?
 - 옷: 모자나 끈 없는 티셔츠, 고무줄 바지
 - 신발: 쿠션감이 있는 미끄럼 방지가 된 신발
 - 기타: 과도한 액세서리 자제,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기

1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구성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떠나요!

안녕하세요? 00 어린이집입니다.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다양하고 즐거운 휴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매년 휴가철이 되면 각종 안전사고 소식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알고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해요.



뜨거운 햇볕 '화상'을 조심해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는 실내 활동을 선택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덧발라주고, 긴 소매 옷·긴 바지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물놀이 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준비운동을 합니다.

물놀이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수경을 착용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30분 후에 물에 들어갑니다.

물놀이 후에는 흐르는 물로 눈 속의 불순물을 씻어냅니다.

TIP 산과 같은 계곡에서는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이나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외출 시 아이스 팩을 준비하여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외에서 휴이나 식물을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이들은 입주위도 닦아주기)

음식은 섭씨 74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조리해서 충분히 익혀줍니다.

TIP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음식섭취를 중단하고 물이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삼가고, 피부에 수포, 가려움증 등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살인 진드기와 해충에서 보호해요!

진드기는 산이나 풀숲 등 수풀이 우거진 곳, 5월부터 8월까지 활동이 왕성합니다.

풀숲에서는 소매가 긴 옷, 목이 긴 양말, 운동화를 신고, 돗자리를 준비합니다. 야외활동 시에는

계피 스프레이나 해충기피제를 뿌려 차단합니다.

외출 후 돌아와서는 돗자리를 털어주시고, 옷도 깨끗이 세탁합니다.



여름 휴가철 비상약 체크리스트

☐ 멀미약

☐ 해충기피제(모기, 진드기)

☐ 살균소독제

☐ 상처 연고

☐ 일회용 밴드

☐ 해열·진통·소염제

5.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현장 학습 안전 점검표 ¹⁴⁾

장소				날짜	
출발시간				도착시간	
준비물	☐ 물티슈, 휴지 ☐ 비닐봉투, 지퍼백 ☐ 여벌옷 ☐ 네임펜 ☐ 투약물 ☐ 사진기 ☐ 돛자리 ☐ 휴대전화 ☐ 비상연락망 ☐ 비상약 ☐ 개인이름표 ☐ 교사배낭				
구분	내용				확인
출발전	등원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당일 현장학습 지원교사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 하기				
	교사의 위치를 선두, 중간, 후미로 나누어 위치별, 시간별 역할 공유하기				
	특이사항이 있는 영유아 정보 교사 간 공유하기				
	인솔의 경로 및 비상시 대피로나 진행 주의사항 교사 간 공유하기				
	개인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영유아 확인하기				
	영유아들 개인 물품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영유아들이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는지 확인하기				
	영유아들의 개별 이름표를 달아주기				
	투약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영유아들의 출결 상황 확인하기				
	현장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준비하기				
현장학습 장소에서	멀미 및 기타 차량이동 특이사항 영유아 확인하기				
	이탈하거나 뒤처지는 영유아 확인하기				
	수시로 인원점검하기				
	놀이 장소에 영유아들이 다칠만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놀이 시 모든 영유아를 살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기				
	수시로 영유아 건강상태 확인하기				
마무리	영유아 인원 점검하기				
	개별 영유아 건강상태 확인하기				
	영유아들이 가져온 개인물품 확인하기				
	도착예정시간을 보호자에게 문자나 알림장 앱을 통해 안내하기				
	각 영유아들의 보호자를 확인 후 인수인계하기				
	하원 보호자 변경 시 확인 후 인수인계하기				
사후평가	늦게 하원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명단 확인 후 인수인계하기				
	다음 현장학습 시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 평가, 기록하기				

14)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구성

6.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치명적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통학차량¹⁵⁾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통학차량 문에 옷이나 가방끈이 걸린 채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앞이나 뒤에 어린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질식하는 경우,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가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경우, 차에서 내린 후 차 앞을 지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사소한 안전수칙을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소홀히 여기고 방심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중상,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학차량 운행 시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을 통하여 영유아를 사고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세요.
2.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보육교직원이 함께 타세요.
3. 모든 유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좌석에 한 유아만 앉도록 하세요.
4.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보호자와 함께 등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아의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를 준비하세요.
5. 출발 전 모든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세요.
6. 하차 전 내리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안전벨트를 풀려주세요.
7. 차량에 남은 영유아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8. 등·하원 시, 영유아를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 후 출발하세요.

¹⁵⁾ 어린이안전넷 www.isafe.go.kr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사례

[사고사례1]

교사와 기사의 부주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네 살짜리 유아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 운전사는 이 군을 포함한 원생 19명과 인솔교사를 내려준 뒤 버스를 출발시켰고 인솔교사는 모든 원생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려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군은 버스 앞에 남아

있다 운전사가 미처 보지 못해 변을 당했다.

.....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헤럴드경제 2015.3.10]

[사고사례2]

기사의 교통규칙 위반 / 방심한 교사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급제동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안겨 있던 세 살배기 유아가 튕겨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보육교사 등은 도착을 앞두고 보채는 유아를 달래면서 가장 먼저 하차시키기 위

해 안전벨트를 풀 채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

사고 당시 있던 다른 원생 18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무사했다.

[국민일보 2015.3.27]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TIP!

차량 / 운전기사 확인사항

1. 차량 안전점검표를 부착하고 점검해주세요.
2. 운행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 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운행 중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운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확인합니다.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원장 확인사항

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세요.
2.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구비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성범죄경력 조회하세요.
3.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세요.

영유아 확인사항

1.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하세요.
2. 차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지 마세요.
3.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4. 유리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5.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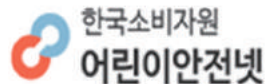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 운영,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자료,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 정보제공.



어린이 안전넷

www.isafe.go.kr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 안전학습 자료,
응급처치법, 어린이 안전게임 등 제공.



어린이 안전학교

www.go119.org

어린이 안전 인증교실, 교사,
부모님 교육지침서 제공.



어린이 안전교육관

www.isafeschool.com

어린이안전, 자전거교육,
실내 및 실외 교육장 등



어린이집안전공제회

www.csia.or.kr

안전교육, 안전관련 동영상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차량탑승시

1. 성인이 영유아를 안고 타지 않습니다.
2. 만5세 이하의 유아는 뒷좌석에 앉히도록 합니다.
3. 만3세 미만 유아들과 자동차를 탈 경우 영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4. 파손되거나 노후화 된 영아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행 중

1.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니다.
2. 횡단보도는 우측통행이 안전하지만 일반 도로는 좌측통행이 안전합니다.
3. 차도, 도로, 주차장, 도로에 인접한 담이 없는 뜰에서 놀지 않도록 합니다.
4. 눈, 비 올 때에는 더욱 주의하여 차로에서 멀리 떨어져 걷습니다.



통학차량 이용 시

1. 영아의 통학차량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까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길은 영유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등원직전에도 따뜻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급적 보호자가 어린이집까지 함께 등원해주세요.
3. 탑승 장소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내 아이에게 맞는 영아용 보호장구란? ¹⁶⁾

- 값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 마음에 드는 영아용 보호장구가 있다면 직접 아이를 앉혀보고 선택합니다.
-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해 시트 소재가 위생적인지, 천연 소재인지 확인해보세요.
- 설치방법이 간편하고 쉬운지 확인하세요.
- 성장하는 아이 몸에 맞추어 변형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1. 만1세 미만

만1세 이하의 아이는 뒷자석에 아이의 얼굴이 뒷자석 등받이를 향하게 고정하는 후방장착 타입의 영아용 보호장구를 사용합니다.



- 버클을 먼저 채운 뒤 필요하면 담요를 덮습니다.
- 만약에 아이가 작아 기대어 버틸것이 필요하면 담요, 기저귀, 수건 등을 말아서 카시트와 아이 어깨나 머리, 다리사이에 끼워줍니다.

2. 만1세~만2세

전방장착 보호장구를 사용하거나 후방장착과 전방장착이 모두 가능한 컨버터블시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깨끈은 아이의 어깨를 지나게 하고 가슴부위 클립은 겨드랑이 높이로 맞추어주세요.

3. 만3세~만5세

보조의자를 사용하여 앞쪽을 향하게 앉히세요. 뒷자석 등받이나 머리받침이 아이 머리를 받치지 못하면 등받이가 있는 보조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재구성

6.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 모든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까지 살펴보세요.
- 모든 영유아가 자리에 앉았는지(안전벨트 착용) 확인 하세요.
- 승차 전/후 영유아의 인원을 꼭 확인하세요.
- 차량에 남은 영유아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교사부착용자료 ✂

6.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기사님 잠깐! 출발 전 확인하세요!

출발하기 전	영유아가 내리기 전
모든 영유아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 착용했는지	주변에서 이동 중인 차량이나 오토바이 확인! 완전히 멈춘 후 내리도록!

7. 실종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 한다.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 ¹⁷⁾

실종아동이란 납치·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실종아동은 약 **2,000건 이상**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종 후 1~2일 내에 발견이 되어 부모에게 인계가 되고, 48시간 이상 미발견 된 아동의 경우는 장기실종아동으로 명명되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관련 자료가 넘어가며 13.5%가 유기, 성폭행, 강도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아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부모에게는 그 시간이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아이는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아이를 찾지 못했을 경우 **가정해체의 결과** 까지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실종아동은 발생 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외부 활동 시 **수시로 인원점검**을 해주세요.
2. 외부활동 시 모든 영유아가 **보육교사의 시야 안에** 있도록 주시해 주세요.
3. 외부활동 시 **인솔하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4.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미아방지용품**을 준비해주세요.
5. 어린이집의 현관문은 안전하게 **개폐 관리**를 해주세요.
6. 영유아가 귀가 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인계하도록 해주세요.



실종아동 발생현황

※경찰청 2014년 12월 말 기준

연도/사례	발생건수	발견건수(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2010	26,984	26,946	38
2011	28,099	28,060	39
2012	27,295	27,152	143
2013	23,089	22,886	203
2014	21,591	21,101	490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발생이 '12. 2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제'와 '위치 추적제' 실시로실종아동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발견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7) 경찰대학 산학협력단(20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 정책개발 연구.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1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www.childfund.or.kr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TIP!



Tip! 어린이집에서 확인해요!

등·하원 시

1. 어린이집 현관문 개폐관리를 하세요.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잠금장치, 영유아 손에 닿지 않도록 개폐장치 설치, 현관 앞 인터폰 모니터 설치)

2. 귀가 시 보호자를 확인하세요.

- 귀가 동의서 작성하기 : 영유아 인계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문서화하여 명시합니다.
- 영유아를 혼자 귀가 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합니다.
- 다른 성인에게 인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실내자유놀이 시

1. 영아반은 교실문에 안전문을 설치하세요.

2.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이동사항을 항상 확인하세요.

- 영유아가 화장실, 복도 등 보육실 외의 공간에 가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실외활동 시

1. 실외활동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문, 출입구, 울타리 등을 통해 외부와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고 놀이를 합니다.
- 외부인이 들어오며 문을 여는 사이 영유아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2. 산책을 하거나 동네놀이터를 이용할 때 수시로 인원을 파악하세요.



Tip! 나들이 시 확인해요!

1.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세요.

- 건물에 들어가기 전/후/중간, 차량 승차 이전/이후, 이동 시 점검합니다.

2. 미아방지 손목밴드, 목걸이, 명찰을 준비하세요.

- 유괴 방지를 위해 아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3. 나들이, 산책, 견학 전 영유아가 입은 옷을 기억하세요.

-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밖에 나가기 전 단체 사진을 찍어 두어도 좋습니다..

4.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이나 단체복을 입으세요.

5. 영유아에게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짝공을 정해주세요.

6. 사전에 도움 인력을 확보하고, 교사간의 역할분담을 나누세요.

- 자원봉사나 부모, 기타 교사 등 도움인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7. 영유아와 꼭 함께 이동하세요.



실종아동 예방 안전교육 TIP! ¹⁸⁾

우리 아이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실종아동예방 3단계 구호!

1단계 : 멈추기

길을 잃어버리거나 선생님, 부모님과 헤어지면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기다리도록 알려주세요.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 잘 있어준다면
성인이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생각하기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 어린이집 이름,
전화번호 등을 **10번씩 생각하도록 알려주세요.**
평소에 잘 기억하더라도 일이 발생되면 쉽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연습하여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3단계 : 도와주세요

주위에 있는 경찰아저씨께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주세요.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통화 112’를 눌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TIP!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따라갈 경우
유괴와 같은 2차 사고가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경찰, 안전요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알려주도록 합니다.



유괴범의 모습은 허름한 옷차림이나
험상궂은 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괴범은 깔끔한 옷차림이나 인자하고
친절한 모습일 수도 있음을 알려주세요.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경우에는
“안돼요! 싫어요!”라고
크게 말하고 도망가는 연습을 시킵니다.

18)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www.childfund.or.kr

‘미아예방 송’ 함께 불러보아요!¹⁹⁾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부모님과 아이들이 알아야 할 실종아동예방법, 대처요령,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및 게임, 실종 아동 검색 생활안전지도, 법령 및 기관정보 수록.



Find a Missing Child Association of Korea
실종 아동 찾기 협회

<http://www.safe182.go.kr>

실종아동 검색, 신고 및 제보하기, 동영상 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www.missingchild.or.kr>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 꼭꼭이 예방교육 인쇄자료, 영상 및 노래자료, 미아 예방 캠페인 및 홍보, 실종예방 교육(기관방문, 교사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실종아동관련 법령, 학술, 통계 등 자료 검색 안내.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1. 실종아동 예방용품(팔찌, 이름표, 목걸이) 활용하세요.
2.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 사전등록제 신청 하는 곳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홈페이지(www.safe182.go.kr)
 - 6개월 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3. 미아 발생 시 대처방법을 영유아에게 알려주세요.
 - 이름, 보호자 이름, 연락처 기억하기, 미아 3단계 구호 등을 알려줍니다.
 - 미아 3단계 구호(멈춘다! 생각한다! 도와주세요!)를 함께 연습하고, 비상 시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9)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www.childfund.or.kr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실종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십계명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하세요!!

1.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2.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님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알려주세요.
3. 자녀의 정면사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미리 찍어두고 소지하고 다니세요.
4. 팔찌, 이름표, 목걸이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5. 외출 시 자녀의 착의사항을 기억하세요.
6. 자녀의 하루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7.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알려주세요.
8. 미아예방 3단계 구호(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를 암기시키고 함께 연습하세요.
9. 길이 어긋나 못 만났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 실종예방 사전 등록을 신청해두세요.

실종예방 사전 등록제 (미아방지 지문 등록)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입니다.

사전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 ① 실종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매년 증가하던 실종건수가 사전등록 서비스 시작 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② 우리아이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등록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① 경찰관서 방문등록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합니다.
- ② 안전Dream 인터넷 자가등록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합니다.
→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을 클릭



7. 실종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 한다.

밖에 나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인원점검



이름표 확인



준비물 확인

7. 실종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 한다.

미아방지구호를 외쳐요!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8.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한다.

미디어 안전이란?

스마트폰이나 TV, DVD, 컴퓨터 등 전자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 미디어의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사용**은 영유아에게 필요한 놀이와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필수적인 신체적, 사회적 접촉 등 대인 **상호작용 경험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능력 저하, 발육부진, 사고력 저하, 전자파 노출**로 인한 질병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영유아의 전자 미디어 **노출 경험을 최소화**시켜 전자 미디어와 친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2. 전자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주세요.
3. 전자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활동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도록 해주세요.
4. 가정의 **전자 미디어 이용 상황**을 체크해주세요.
5. 가정에서도 전자 미디어의 **위험을 인지**하고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 가정에서 미디어 사용 이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2세 이하 영아 85% 스마트폰 갖고 놀아...성장에 부정적'

6살 이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톨릭대 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80%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2세 이하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짜증을 덜 내게 한다고 쉽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만 휴대폰을 많이 쓰는 영유아들은 정서조절이 어렵고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자극에 주의집중을 하고 규칙에 맞추어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놀고, 사용 시간을 함께 정하고, 사용할 때 같이 보면서 아이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SBS뉴스, 2015.05.07]



과도한 미디어 노출, 무엇이 문제일까요?

1. 강렬한 색채의 시각적 영상, 소리 등의 일방적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영유아를 **병리적 증상**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2. 영유아기는 **오감을 통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한 시기**이나 전자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놀이의 기회가 제한되어 영유아의 뇌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좋은 교육내용이라도 전자미디어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 영유아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이나 **미디어는 상호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등 영유아 발달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영유아가 **장시간 한 자세로 전자미디어에 노출되면 안구건조증이나 척추측만증, 운동 경험 부족으로 성장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증후군이란? ²⁰⁾

비디오증후군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된 과도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컴퓨터, DVD시청 등으로 인해 유사자폐, 언어장애, 사회성 결핍 등을 겪게 되는 정신 질환입니다. 24개월 이전에 자극적인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에 치명적인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뇌 발달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을 금하고 있으며, 24개월 이후라 할지라도 뇌가 완전히 발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미디어 시청은 주의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영유아 혼자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경우 확인해보세요!

- ☐ 눈맞춤이 저조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혼자놀이를 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나요?
- ☐ 기분 변화가 심하고 갑자기 짜증을 내나요?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정서 조절의 문제가 있나요?
- ☐ 언어 표현적 의사소통이 저조하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지연되어 있나요?
- ☐ 특정 장난감이나 색깔, 단어, 문자 등에 집착하고 반복적인 놀이 패턴을 보이나요?
- ☐ 무의미한 단어를 중얼거리거나 비디오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조나 어휘를 사용하나요?

※ 위의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미디어 사용을 중지하고 반드시 소아정신과에서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20) 신의진(2004) 과잉조기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책연구 2004-일-9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윤선화(2011). 영유아 안전교육. 양서원
위키백과 ko.wikipedia.org



어린이집 미디어 안전을 위한 연령별 유의점

영아 미디어 안전

1. 0~2세까지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2. 전자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대신 신체활동과 오감을 활용한 탐색 활동,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 미디어 안전

1. 보육과정에서 전자 미디어 활용을 최소화합니다.
2. 유아들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해,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통합반, 시간연장반 등) 습관적으로 전자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전자 미디어 시청은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지 반드시 고려합니다.
4. 전자미디어는 교사가 함께 시청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이 되도록 합니다.
5. 전자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노래는 선생님의 목소리로
동화는 선생님과 책을 보며
함께 하고 싶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심센터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http://www.iapc.or.kr>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상담, 중독예방 교육, 유아 교육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eoul.childcare.go.kr>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부모교육, 육아전문칼럼(영유아가정지원 육아정보)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우리아이 스마트폰증후군 체크리스트²¹⁾

- ☐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한다.
- ☐ 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어서 조를 때가 많다.
- ☐ 스마트폰을 못하게 되면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 ☐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만 흥미진진해보이고 생기 있어 보인다.
- ☐ 스마트폰을 안 할 때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 ☐ 다른 할 일이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 ☐ 스마트폰을 못하게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한다.
- ☐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해 보인다.
-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함을 보인다.
-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 ☐ 정해진 사용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 ☐ 스마트폰을 오래 하느라 아이 체중이 변화한 것 같다.
- ☐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
- ☐ 정해진 사용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 44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중독 성향이 높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29~43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쓸수 있도록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점 이하 : 사용자군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도방법

1. 영유아와 함께 전자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정해봅니다.

- 언제, 어떤 매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간의 시간동안 사용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며 '선택'과 '조절력'을 키워줍니다.
- 단,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중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영유아와 전자미디어를 통해 학습하기 보다는 오감을 활용한 놀이를 함께합니다.

- 영유아가 미디어화면을 보고 있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화면이 신기해서일 뿐,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전자미디어에 노출된 영유아들의 발달이 현저하게 늦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하는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3. 미디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시청합니다.

- 영유아들과 영상물을 볼 경우 화면 속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한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21) 인터넷중독대응센터 <http://www.iapc.or.kr>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우리 아이 미디어 안전 함께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 ☐ 우리 아이에게 만2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주었나요?
- ☐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수단으로 스마트 폰을 쥐어주나요?
- ☐ 스마트폰으로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아이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나요?
-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자주 보여주었나요?

* 위의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하단의 '미디어 노출 위험'을 참고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여보세요.



과도한 미디어 노출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1.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운 충동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에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3. 미디어에 중독되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또래와의 대화나 놀이에는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안구건조증이나 척추측만증, 운동능력 부족 등으로 성장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출 시기는 **최대한 늦춘다**
노출 기회는 **최소화 한다**
노출량은 **최소화 한다**

8.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한다.

영유아 미디어 안전을 위해

노출 시기는 **최대한 늦춘다**
노출 기회는 **최소화 한다**
노출량은 **최소화 한다**



9.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²²⁾

식중독의 주 증상은 구토와 설사를 통한 탈수이고, 원인균에 따라서는 패혈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 알레르기의 증상은 가볍게는 두드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아나필락스 쇼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알레르기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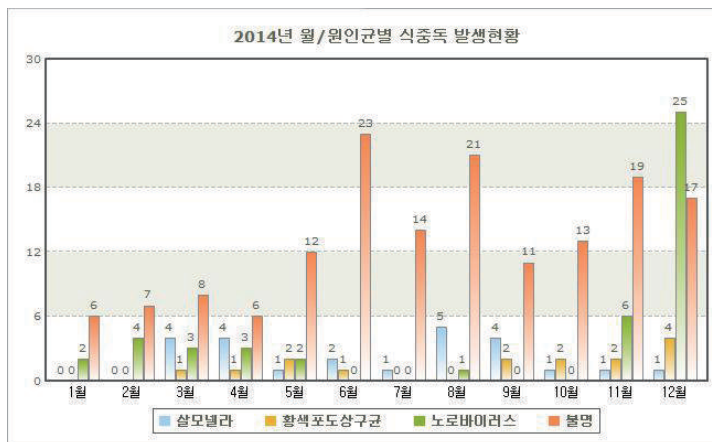


보육교사 Action Plan!

1. 급식 시 청결관리로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해주세요.
2. 입소 시 **영유아별 알레르기, 과민증**을 확인해서 숙지해주세요.
3. 급,간식 배식 시 **앞치마, 위생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4. 영유아에게 **적절한 크기의 음식 조각**을 제공하여 질식을 예방해주세요.
5. 급식 지도 시 영유아들이 음식을 **천천히 여러번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다빈도 사례²³⁾



식중독은 5월~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등 계절에 구분없이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식품의약품안전처 학술지(2014).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사이트 <http://www.mfds.go.kr/e-stat>



어린이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꼭 지켜주세요.²⁴⁾

우리 아이들 식사, 안전하고 깨끗하게



식사전 Check Check!

배식에 적합한 복장과 필요한 도구는 준비했나요?

선생님 손은 깨끗이 씻고 소독했나요?



식사중 Check Check!

식사속도는 적당한가요?

연령별로 음식의 크기와 양이 적당한가요?



식사후 Check Check!

환기는 충분히 했나요?

식사 후 활동은 적당한 시간 이후에 하나요?



알아두세요!

※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저녁의 식사시간은 2시간~2시간30분 간격으로 계획합니다.

권 장
식사시간
오전간식 ▶ 9시 30분
점 심 ▶ 11시 30분 ~ 12시
오후간식 ▶ 3시 ~ 3시 30분
저 녁 ▶ 5시 30분 ~ 6시



※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식습관은 저작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24) 서울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포스터 재구성



환경호르몬과 식품안전 관리

환경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산업 활동을 통해 생성,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서 호르몬 즉 내분비가 교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환경호르몬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이 체내로 들어오는 유입경로는 음식과 물을 통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영향²⁵⁾

환경호르몬	용도	영향	주의제품
주의력결핍의 원인이 되는 "비스페놀A"	플라스틱의 원료, 식품포장재, 통조림, 캔의 코팅에 사용, 물병, 젖병에도 사용	주의력결핍, 우울감의 원인 사춘기를 촉진 어린이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플라스틱 식품용기, 장난감, 캔음료, 통조림 피하기
아토피와 천식,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탈레이트"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 모조가죽가방, 지우개,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향수, 방향제 등 향이 들어간 제품에 사용	생식기, 간, 신장에 영향을 주며, 아이들의 아토피, 학습장애, 행동장애를 일으킴	PVC 재질의 제품은 최대한 피하고, 특히 아이들이 빨 수 있는 제품은 제품과 손 자주 씻기
갑상선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트리클로산"	항균 비누, 항균 플라스틱 장난감, 항균 의류나 신발 등 항균을 강조한 제품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하고,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모유에서도 발견되기도 함	항균을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자주 자주 씻는 습관이 중요함
체내에 오래남아 위험한 "과불화화합물"	코팅처리 된 프라이팬, 오염방지 카펫/커튼, 방수 기능 등산복, 일회용종이컵이나 피자포장지 등 음식포장의 코팅	장기간 체내에 남아있고,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요. 발암성, 간과 신장의 손상, 생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방염, 방수 제품을 주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유기주석화합물"	양말, 신발, 운동복 등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살균 목적 사용 플라스틱 제품의 안정제, 페인트의 촉매제,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이용됨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고기 기형 유발 등 생태계 교란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균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주 씻고 세척이 필요.

25) 환경정의.(2014). 생활 속 유해물질 가이드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전자레인지 사용시 플라스틱용기나 일회용 비닐, 랩은 사용하지 않는다.
- 뜨거운 음식물은 유리 혹은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는다.
- 코팅처리한 프라이팬 보다는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리기구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 통조림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통조림 깡통 채 가열하지 않는다.
- 잔류농약제거를 위해 농산물은 받아놓은 물에 1분정도 담갔다가 흔들어 준 다음 흐르는 물에 약 3초-15초 정도 다시 씻어 먹는다.
- 과일 포장지 등에 포함된 형광증백제 제거를 위해 수박과 같이 껍질이 두껍거나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이라도 식초와 물의 비율을 1:10로 섞은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다.

식품 알레르기 영유아 관리

식품 알레르기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특정사람에게 나타나는 과민반응으로 영유아들에게 복통, 구토, 설사, 두드러기, 피부발진, 호흡곤란, 기침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들은 다음과 같이 관리해주세요.

1. 입소시영유아별 **알레르기나 과민증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파악하고, **식단 계획 시 이를 고려하고 대체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영유아의 경우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보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도 알립니다.**
3. 급식재료를 상세히 기입한 **식단표를 가정**에 사전 배포하고, **배식할 때 대상 영유아에 대한 식사지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해보세요!



이런 식품은 안전하지 않아요 ²⁶⁾

1. 무허가 제품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등록 또는 특허 출원종이라는 애매한 표시가 있습니다.
2.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 겉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릅니다.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납니다.
3. 유해물질 사용제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곱고, 유난히 부풀어 있습니다.
4. 통조림이나 캔 음료 등 겉이 찌그러져있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
5. 원료명 미표시 제품
6.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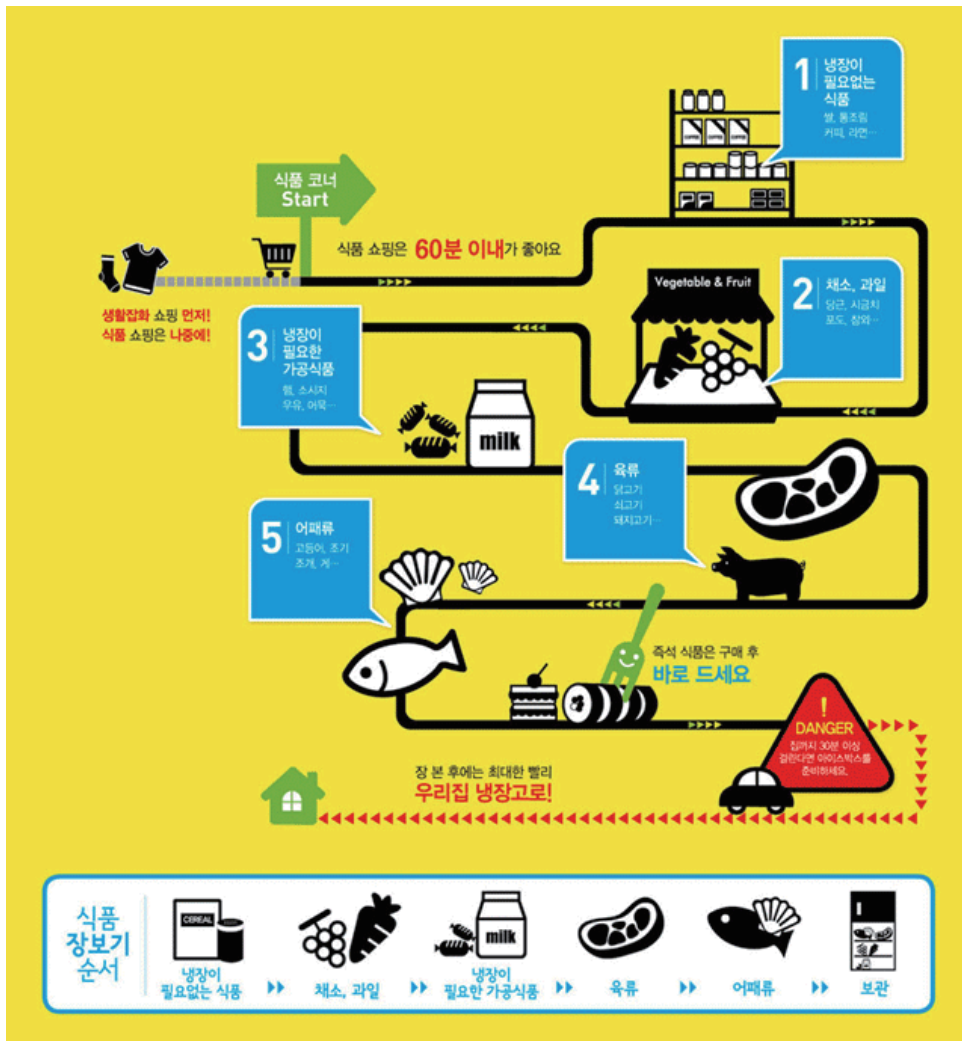
1.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설사 증세가 있다면 탈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3.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핍니다.
4.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26) 보건복지부(2010). 보육시설 급식운영 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안전한 장보기²⁷⁾



이런 식품은 안전하지 않아요!

1.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또는 무신고 식품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3. 허용되지 않은 색소 및 표백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식품
4. 색이 변하였거나 이상한 맛, 냄새가 나는 식품
5.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6. 불결한 또는 비위생적으로 취급된 식품

27)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9.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급 · 간식 전에 !
잠깐!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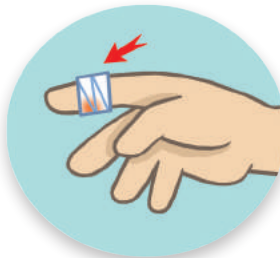
교사부착용자료 ✂

9.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No! No!



구토, 설사 증세 있는
종사자 조리금지



손에 상처가 있는
종사자 조리금지



반지나 매니큐어 한
손으로 조리 금지

10.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비상 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응급 상황에서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가 부상자의 삶과 죽음 또는 회복기간 및 장애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에 어린이집에서 재난사고를 대비한 연습을 통해 영유아에게 **대피능력을 키워주고, 보육교사들은 대처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Action Plan!

1. 응급상황 시 역할분담, 응급연락처, 응급매뉴얼, 구급상비약 등을 미리준비해 주세요.
2.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특이체질인 영유아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주세요.
3.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세요.
4.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세요.
5. 화재,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 해 주세요.



사례로 알아보기

어린이집 '응급처치 소홀' 혼수상태 5세 유아, 끝내 숨져

어린이집에서 숨이 멎은 채 발견돼 8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졌던 다섯 살배기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갈 때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우유를 잘 먹

지 못하고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머니투데이 2015.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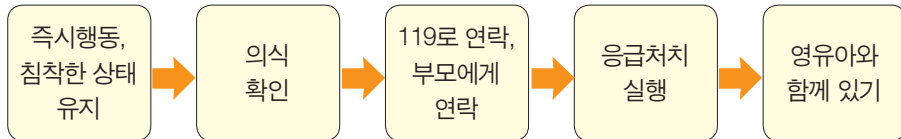


응급처치 TIP! ²⁸⁾

Tip!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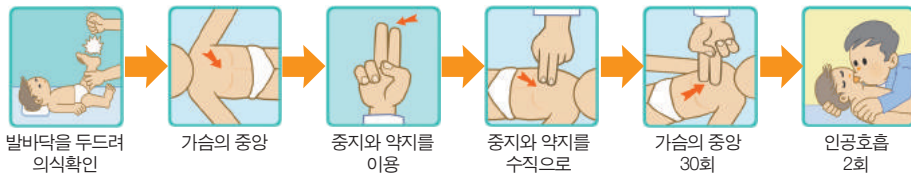
1. 비상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세요.
2.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세요.
3.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숙지하세요.
4.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의약품과 기구를 준비하세요.
5. 치료 시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개인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기록·보관하고, 응급상황의 대처과정에 필요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두세요.

Tip!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Tip! 응급처치법

1. 심폐소생술 : 의식확인 → 구조요청 →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영아(12개월 미만)	유아(만1세~8세)
가슴압박방법	두 손가락으로 젖꼭지 조금 아래라인 압박	한손으로 가슴 1/3이 들어가도록 압박
인공호흡방법	입과 코를 함께 덮고 1초에 걸려서 천천히 숨을 불어넣음	아이의 코를 잡고 입과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음

2. 하임리히법(1세 이상 소아에서만 사용)



① 뒤에서 양팔로 아이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는다.



② 한쪽 주먹을 아이의 배꼽 위에 놓고 위를 향해 강하게 밀어올린다.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1. 의식을 잃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동시에 구급차를 부릅니다.

2. 기도가 막힌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 기침을 유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경우 119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3. 출혈

직접 압박지혈법 : 동맥, 정맥, 모세관의 출혈의 경우 모두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상처를 닫는 듯이 그 부위를 직접 거즈, 손수건, 타월 등으로 강하게 5~10분정도 압박합니다.

4. 물에 빠진 경우

튜브나 막대기를 활용하여 영유아를 건져냅니다. 영유아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젖은 옷을 벗기고 영유아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옆으로 눕히며 119에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배를 누르거나 억지로 구토를 시키지 않습니다.

5. 감전된 경우

119 구급차를 요청하며, 전원을 먼저 차단합니다. 전원차단이 어려우면 막대나 고무장갑 등 부도체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전기로부터 떼어 놓습니다.

6. 머리를 다친 경우

머리를 부딪혀 두피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경우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소독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위로 올린 자세로 눕히고 상처 주변을 약간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7. 독극물을 마신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삼킨 물질을 확인 후 119에 전화하여 전문가의 지시를 따릅니다.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다.

8. 화상

가벼운 화상의 경우 흐르는 물로 15분 정도 식혀주고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인 경우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젖은 옷을 벗기되, 억지로 벗기면 피부가 더 손상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9. 소모성 열사병과 일사병

영유아를 시원한 곳에 두고 이온음료를 주어 수분을 섭취하게 하면서 치료합니다. 머리, 얼굴, 겨드랑이를 식혀주고, 다리를 올린 자세로 눕힙니다.

10. 코피가 나는 경우

영유아를 조금 앞으로 굽히고 코뼈 바로 밑의 코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5~10분간 꼭 누릅니다.

11.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

부러진 치아는 식염수에 담가 상태를 보존하고 바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 시 교사의 대응방법

화재 시

1. 사전에 지정된 대피경로를 통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영유아들을 대피시켜주세요.
2. 화재발생 지점과 반대방향(연기가 보이지 않는 방향)의 비상구로 대피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연기의 유입을 막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후 구조 신호를 보내며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지진 발생 시

1. 지진은 길어야 1~2분 이내에 종료하므로 멀리 대피하려 하지 말고 영유아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 있으세요.
2. 영유아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실외활동 시 지진이 발생한다면 건물이나 전선 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세요.
4. 떨어지는 물건들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풍 시

1. 교실에 창문과 문을 닫아주세요.
2. 가급적 외부활동을 피하고 주변의 상습 범람 지구나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사전에 알아두고 주변에 접근하지 마세요. 또,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을 걸어 다니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낙뢰 시

1. 실내 -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에서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물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2. 야외 - 평지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피하고, 몸을 낮추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건물 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세요. 대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재난정보센터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www.safekorea.go.kr
재난에 대한 예보 및 정보제공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http://fire.seoul.go.kr/
생활안전(위기대처법, 안전사고대처, 응급처치 등)
정보제공

어린이집 안전수칙(가정연계자료)

-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안전해요.

응급상황 발생시 이렇게!

1. 119로 전화하면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19에 신고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3. 전화를 끊지 않고 119의 응급처치 요령을 전달받습니다.

우리집 주소는 ()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입니다.
 아이의 연령은 ()살입니다.

가정에 두면 유용한 비상약품

의료용 재료	바르는 약	먹는 약
- 붕대,거즈,소독솜,삼가붕대,탄력붕대 - 칼,가위,핀셋,면봉,족집게,반창고 - 설압자, 고박체온계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밴드 - 각종부목, 얼음주머니, 소형전등 - 쿠션(다리를 올려놓는 용도), 들것	- 상처용 외용연고 - 근육용 마사지 연고 - 화상용 바세린 거즈 - 관장약 생리식염수 - 벌레 물린데 바르는약	- 진통제 - 해열제 - 소화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당황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알고 있더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10.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응급의료 체계 신고요령

- 119로 전화하면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응급 환아가 발생하면 그 즉시 119에 신고한다.
- 119에 신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다.
- 전화를 끊지 않고 119의 응급처치 요령을 전달받는다.
-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교사는 환아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119 전화 시 필수 전달 사항

- 주소는? ➡ ○○구 ○○로 ○○길 ○○어린이집
주변 건물은? ➡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건물(은행, 관공서 등)
어떤 상태입니까? ➡ 질병 또는 사고 상태 등
전화번호는? ➡ ○○○-○○○○ (경우에 따라 핸드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당황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알고 있더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교사부착용자료 ✂

10.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응급시 나의 역할

- 응급시 나는 ()을 합니다.
- 119에는 () 선생님이 신고합니다.
- 응급처치는 () 선생님이 합니다.
- 응급처치보조는 () 선생님이 합니다.
- 비상약품과 기구 준비는 () 선생님이 합니다.
- 남아있는 아이들은 () 선생님이 돌봅니다.

참고문헌

- 경찰대학 산학협력단(20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 정책개발연구.
-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김다희(2006). 어린이집 현장학습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식(2014). 새집증후군 완전정복. 라온북.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12). 제31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2015). 우리아이를 위한 생활 속 환경호르몬 예방관리.
- 서울특별시(2004). 안전사고사례집.
- 서울특별시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포스터.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
- 소방방재청(2009).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어린이 가정안전사고 예방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통계시스템사이트(<http://www.mfds.go.kr/e-start>).
- 식품의약품안전처(2014).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학술지.
- 신의진(2004). 과잉조기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책연구2004-일-9.
- 어린이환경과건강포털 홈페이지(www.chemistory.go.kr).
- 어린이안전넷 홈페이지(www.isafe.go.kr).
- 위키백과 홈페이지(<https://ko.wikipedia.org>).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윤선화(2011). 영유아안전교육. 양서원.
- 이미화외(2012).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iapc.or.kr>).
- 질병관리본부(2007).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똑바로 눕혀 재우기.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childfund.or.kr).
- 환경부(2010). 어린이와 환경물질이야기.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출판물명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발행일	2016년 1월 초판 2쇄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2133-5110
집필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남인숙(신사어린이집 원장) 윤서연(면일어린이집 주임교사) 홍수경(예금보험공사어린이집 교사)
감수	류승표(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장) 신동주(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현정(순천향대학교 소아응급센터장)
기획·총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저작권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일부 유상판매)
ISBN	979-11-5621-510-3